

절반 지난 여수박람회 ‘흥’이 안난다

기대 못미친 특수 지역상권 몰살...임장권 할인 등 고심

오는 8월 12일까지 93일간 펼쳐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27일로 반환점에 다다랐지만 관람객은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시관 예약제 폐지와 부활, 잦은 입장료 조정 등 운영 전반도 여태껏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남은 기간 ‘절반의 성공’이라도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마케팅과 학생 단체 관람객을 위한 풍성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임장권 세일’ 효과 미지수=조직위는 93일간의 전시기간 동안 8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입장 수입으로 1832억원을 벌어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25일 현재 누적관람객은 230만명을 밑돌고 있다. 93일 동안 하루 평균 8만6000명이 박람회를 찾아와야 목표 관람객을 채울 수 있지만 그동안 하루 5만명 꼴로 입장했다. 남은 기간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11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람회 조직위는 최근 K팝 전용무대를 신설해 매일 밤 유명 가수들을 박

람회장으로 불러 들이고 있지만 관람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공연이 오후나 밤에 펼쳐져 원거리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또 전시기간을 50%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임장권 세일’에 나

서고 있지만 할인 전 입장권을 구입한 관람객들로부터 반감만 사고 있다. 성인 기준 20만원했던 전기간권을 미리 구입한 관람객은 상대적으로 “10만원을 손해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조직위 홈페이지에는 오락가락

하는 입장권 가격에 항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특수’ 실종 지역상권 몰살=관람객이 기대보다 적은 탓에 여수지역에선 ‘박람회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나온다. 관람객이 7만~8만명에 달하는 토요일만 도심권 숙박 업소가 동나는 등 반박 특수가 되풀이될 뿐이다. 대부분 관람객들이

박람회 개장 시간 동안 전시관 입장을 위해 박람회장에서 대기하고 있어, 주간 박람회장 특수도 기대 이하가 됐다. 이에 점심시간에 박람회장 밖으로 빠져나와 식사를 하는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변 식당가도 몰살을 짓고 있다.

<2면에 계속>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세계박람회 최고의 인기 전시관인 아쿠아리움 관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엑스포조직위가 최근 100여m 구간에 그늘막을 설치했다. 26일 관람객들이 아쿠아리움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열에서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민선5기 중간평가

고용효과 낮은 기업유치

지방자치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일자리다.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줄이고, 세수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민선 5기 출범 후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내외 기업체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들 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양성되지 못하고 있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확대돼 필요 인력이 줄면서 지역 내 일자리는 크게 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유치 단계에서부터 대학 등과 연계해 필요 인력을 함께 육성하는 등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민선 5기 들어 지난 5월 현재 691개 기업을 유치해 13조여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는 민선 5기 목표 유치 기업체 수(2000개)의 34% 수준이며, 투자 금액은 목포지(10조원)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하지만, 일자리는 목표치인 10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2만6000여명에 그쳤다. 돈과 기업은 몰리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일자리가 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동화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줄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지역 내 인력도 부족한 탓이다.

이전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영국의 경우, 지자체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 대학에서 양성해주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인력을 양성하면서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야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공력산업 육성에 맞춰, 목포대학교가 해상풍력인력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손을 잡은 좋은 예다.

◇광주시=지난 2년 동안 국내 191개 국외 49개 등 모두 24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3조3439억원의 투자액과 1만4464명의 고용창출 계획을 이끌어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로 투자한 기업은 국내 79개 국외 7개 등 86개 기업으로, 실무자율은 35.8%에 이른다.

광주시는 이 같은 투자유치 실적을 발판삼아 지난 2년간 5만6000개의 일

자리를 창출해냈다. 이는 강릉대 시장이 민선5기 목표로 제시한 10만2000개의 54.2% 수준으로, 전반적 목표치 50%를 이미 초과달성한 셈이다. 광주시는 다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실적이 1만872개로 다소 부진한 데 대해 ‘국내·외 경기 침체 및 기업구조 고도화의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외기업유치가 가시화되는 민선5기 후반기에는 민간분야 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돈·기업 몰려왔지만 일자리 창출은 미흡

지리산 케이블카 보류

월출산 불허...한려해상만 허용

구례군이 추진했던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보류됐고, 영암군의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무산됐다.

환경부는 26일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 열고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한 7곳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지리산 국립공원 4곳(구례, 남원, 함양, 산청)과 설악산 국립공원(양양) 1곳, 월출산 국립공원(영암) 1곳 등 6개 지역의 공원계획변경(안)은 부결됐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사천) 1곳만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지리산권의 경우 4개 시·군의 과열 경쟁으로 특정 지자체만을 허가를 내주는 게 큰 부담이 꽤 한 곳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과열 경쟁과 환경단체 반발로 현 상태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경우 지역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례군은 자신들이 제출한

케이블카 계획인 지리산권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부결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례군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함께 부결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만큼 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이 신청한 월출산 내 국립공원을 제외한 구례군 등 나머지 5개 지역은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 등의 부결 사유를 보완할 경우 다시 케이블카 시범 사업을 신청할 수는 있다.

한편 구례군은 산동운천지구~노고단 인근 KBS중계소 하단 4.3km 구간에 3년 동안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케이블카를 놓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었다. 이 계획안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한 뒤 기존 탐방로와 성삼재 주차장을 폐쇄하고, 국립공원 내 삼원마을 이주 등을 통해 9만3000㎡를 생태 복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변협, 의원 전원에 세비 반환訴 추진

대법관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장기간 지연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6일 “19대 국회는 지난 7월 원구성을 했어야 함에도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수행하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청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원구성 협상이 진

통을 겪으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지연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세비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국회 개원을 강제하기 위한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정 시점까지 국회 구성에 실패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도 관한 임법청원도 준비 중이다. 한편 차관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격 선적용 판매
062)226-0001

Mercedes-Benz

남악 최대 규모 오피스텔!

1억에 4채!

서울 대림동, 당산동, 강남 세곡지구, 광주 농성동, 광천터미널에서 성공신화를 이룬 유탑유블레스가 놀라운 분양가와 높은 투자가치로 지금 남악신도시를 들쭉이게 하고 있습니다. 1억으로 4채를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도시형 명품 오피스텔 - 유탑 유블레스900

신용도 A+

30년 역사의 믿을 수 있는 기업

남악대표 오피스텔

남악최초 프리미엄 서비스 풀파티시시스템

관리비 최소화

태양광 발전설비시스템 시스템창조 적용

오롱산 영산호 조망권

파격적인 분양가

은행금리 3배 수익률

최저12%~최고16% 수익 가능(예상)

무제한 전매가능

사업자등록식 부가세 약 400~800만원 환급

주택전시관 6월 29일 대공개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전남도청

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UBLESS 900

사업설명회

6월 29일 11시 50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컨벤션홀(전남도청 옆)

황금열쇠를 잡아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분 중 추첨을 통해 행운의 10분께 **황금열쇠(1천)** 증정

청약당첨자 경품이벤트

47" LED TV,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21단 자전거, 선풍기 등 경품 추첨

■ 청약 5일간 선착순 사은품 증정

오피스텔 18층 총 895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전남도청 • 교육청

유탑 유블레스900 • 근원배아채 • 남원초

옥암중 • 남원고 • 남원중

영산초 • 주택전시관 • 중앙광장

영산호

문의 061) 285.8384

시행 (주)유탑건설 시공 (주)유탑엔지니어링

*본단지 사진·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